

기초과학의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우리는 창의성에 기반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지식기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열매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나무는 기초과학의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정부 R&D 투자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기초과학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고등과학원도 개원 이래 저명한 국내외 과학자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활발하고 꾸준한 학문 교류의 장을 열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우수학자를 배출하여 미래를 이끌 선진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외국 연구소와의 글로벌 협력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의 토양을 일구어 온 명효철 원장님을 비롯한 고등과학원 교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가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현재는 창조형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과학원에 있는 핵심 인재들도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진취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의 지평」을 통해 고등과학원에서 자라고 있는 과학기술 나무의 열매가 학계와 일반인에게 널리 나누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고, 아울러 당장의 열매보다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 땅을 북돋우고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하는 데 땀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과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IAS](http://kias.ac.kr)

2009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